

구로쇼인

구로쇼인(黒書院)은 교토 동쪽에 있었던 진언종 사원인 렌게코인 절을 이축한 다음, 다른 건축 요소를 받아들여 개조한 복합적인 건물입니다. 건물 몸채에는 용마루가 있고 지붕은 건물 한가운데에서 바깥쪽을 향하여 경사가 뺏어나가는 전통적인 이리모야즈쿠리(팔작집 지붕 건축 양식)로서 건물 바깥둘레를 따라 뒤탈마루가 놓여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여섯 개의 방이 있는데, 다양한 건축 요소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든 방이 조금씩 다릅니다. 북서쪽 모퉁이 방에는 특별한 격자 천장과 그림과 꽃 등을 장식하는 공간인 도코노마 등 ‘자시키카자리’라고 하는 장식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구로쇼인에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가 조합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시로쇼인이나 신텐과 같은 건축 양식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통일감이 있습니다. 구로쇼인은 이 두 건물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어 연속성이 있는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일련의 건물이 의식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통된 역할을 맡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